

‘KIA 리빌딩’ 무조건 기용이 능사는 아니다

T 타이거즈 전망대

‘무조건 기용’이 아닌 ‘이기는 경기’로 미래를 그려야 한다.

연승으로 시작해서 연패로 끝난 KIA 타이거즈의 한 주였다.

KIA는 지난주 대전에서 두 경기 연속 1점 차 리드를 지키며 5연승에 성공했다. 하지만 비로 한 경기를 쓴 뒤 KIA는 남은 세 경기에서 모두 졌다.

6일 KT전 2-5패배로 올 시즌 상대전적은 4승 11패가 됐다.

신에 김기훈과 강이준이 출격한 주말 키움전도 연패였다. 김기훈이 제구 난조로 3회를 끝으로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고, 강이준은 1.1이닝 5실점의 성적표를 제출했다.

‘집중력’도 문제였다. 안치홍의 실수 연발로 시작했던 한 주, 마지막 날에도 실책 퍼레이드였다.

1루수 김주찬을 시작으로 2루수 황윤호, 3루수 고장혁, 유격수 박찬호까지 내야 전일 실책이 기록됐다. 우익수 유재신도 기록으로 남지 않았지만 아쉬운 수비를 보였다. 여기에 오정환의 황당 주루 탓에 박찬호의 2타점 2루타가 2타점 우익수 땅볼로 둔갑하기도 했다.

KIA는 수준 이하의 플레이로 빚속에서도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에게 쓴 입맛을 남겼다.

KIA는 시즌 내내 5강 싸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시즌 중반 KIA는 강도 높게 베테랑들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베테랑을 배제한 리빌딩을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KIA의 라인업은 그때그때 달라졌다.

최근에는 ‘기회’와 ‘테스트’에 초점이 맞춰 선수

지난주 KT·키움전 3연패

실책·주루사 등 실책은 플레이 눈살

선발 테스트, 대패·불펜 과부하 빌미

어린 선수들 경험만이 정답 아냐

노련한 게임 보며 승리 법칙 체득

이기는 싸움 기반돼야 미래 그림

이번주 롯데·두산·LG 6연전

■ KBO 중간순위 (9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K	129	82	46	1	0.641	0.0
2	두산	127	77	50	0	0.606	4.5
3	키움	134	80	53	1	0.602	4.5
4	LG	127	70	56	1	0.556	11.0
5	KT	130	64	64	2	0.500	18.0
5	NC	129	64	64	1	0.500	18.0
7	KIA	130	56	72	2	0.438	26.0
8	삼성	128	54	73	1	0.425	27.5
9	한화	130	49	81	0	0.377	34.0
10	롯데	130	45	82	3	0.354	36.5

단이 운영되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 오디션이 전개되고 있고 백업 선수들의 역할이 많아졌다.

하지만 지난 3연패를 통해 KIA는 남은 시즌을 풀

어갈 방향을 고민하게 됐다.

3연패 기간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많은 팬이 경기장을 찾았다. 5강 싸움은 끝났지만 최선을 다하는, 승리를 보기 위한 결심이 이어지면서 8일 관람객수는 706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결과는 물론 내용도 엉망이었다. 실책은 선수들의 플레이가 팬들을 실망하게 했다.

선발 오디션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KIA는 양현종과 두 외국인 선수 포함 임기영, 이민우, 김기훈, 강인준 7선발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주말 2연전에서 견고함이 떨어진 두 신에 선발이 4.1이닝을 막는데 그치면서 불펜에 불용이 튀었다.

초반 싸움부터 밀리면서 경기 흐름도 일방적으로 전개됐다.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은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경기 출전만으로 경험이 쌓이는 것은 아니다.

베테랑들의 플레이를 보고 배우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가면서 경험을 더해야 한다. 프로답지 못한 플레이와 그에 따른 패배로 인한 경험은 리빌딩의 주요 자산이 될 수 없다.

이기는 싸움을 전제로 적시적소에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

KT와 키움(4승 1무 10패) 징크스를 깨지 못한 것도 내년 시즌을 생각하면 아쉽다.

KIA는 10-11일 사직으로 가서 롯데를 상대하고 이후 잠실로 가서 두산(12-13일), LG(14일)를 만난다. 올 시즌 KIA는 사직에서 5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 잠실 전적도 3승 8패로 좋지 못하다.

KIA가 원정 5연전에서 열세를 딛고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베테랑들 ‘기록 경신의 한주’

양현종, 1800이닝 - 0.1이닝

최형우, 1800안타 - 5

김주찬, 6년 연속 100안타 - 1

김선빈, 500득점 - 1



양현종

최형우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들이 기록 경신을 위한 막판 스퍼트에 나선다.

KIA를 대표하는 이들이 새로운 한 주 기록을 채운다.

에이스 양현종은 다음 등판에서 첫 아웃카운트를 잡으면 1800이닝을 돌파하게 된다. 통산 16번째 기록이다.

양현종은 앞서 올 시즌 27경기에서 나와 170.2이닝을 소화했다.

지난주 5경기에서 5안타에 그쳤던 4번 타자 최형우는 통산 16번째 1800안타를 노린다. 5개의 안타를 더하면 1800안타가 된다.

최형우의 타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시즌 103타점을 올리며 5년 연속 100타점 고지를 밟았던 최형우는 올 시즌 84타점에 머물고 있다.

김주찬은 100안타 기록을 눈앞에 뒀다. 안타 한 개를 더하면 김주찬은 통산 52번째로 6년 연속 100안타를 기록한 타자가 된다.

김선빈은 500득점에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주 김선빈이 홈에 들어오는 순간 KBO리

그의 102번째 500득점이 만들어진다.

김선빈은 올 시즌 111경기에서 나와 104안타로 타율 0.283, 39타점 52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팀 4500도루의 주인공이 된 박찬호는 도루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박찬호는 37개의 도루에 성공하면서 2위 고종욱(SK), 김하성(키움)을 10개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지키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9일 스페인의 공격수 로드리고 모레노(발렌시아)가 스페인 히온 무니시팔 엘 몰리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페로 제도와의 조별예선 경기에서 대표팀 동료 미켈 오야르사발(레알 소시에다드)의 패스를 받고 있다. 오야르사발의 패스를 받은 모레노는 선제골을 넣었다. /연합뉴스

이탈리아·스페인, 선두 질주

유로 2020 조별 예선...스페인, 파죽의 6연승

‘무적함대’ 스페인과 ‘아주리군단’ 이탈리아가 유로2020 조별예선에서 나란히 승리했다.

스페인은 9일(한국시간) 스페인 히온 무니시팔 엘 몰리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페로 제도와 유로 2020 예선 F조 6차전에서 이강인의 팀동료 로드리고 모레노(발렌시아)와 파코 알카세르(도르트문트)의 멀티골에 힘입어 4-0 대승을 거뒀다.

6연승을 한 스페인(승점 18)은 이날 노르웨이를 상대로 1-1 무승부를 기록한 2위 스웨덴(승점 11)을 승점차에서 멀찍이 밀어냈다.

선발로 출전해 스페인 수비진을 지휘한 ‘주장’ 세

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는 A매치 통산 167경기에 출전, ‘레전드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포르투)가 보유한 스페인 A매치 최다 출전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같은날 이탈리아도 이번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득점 2위(5골) 티무 푸키(노리치 시티)가 버틴 핀란드를 상대로 2-1 승리, 선두를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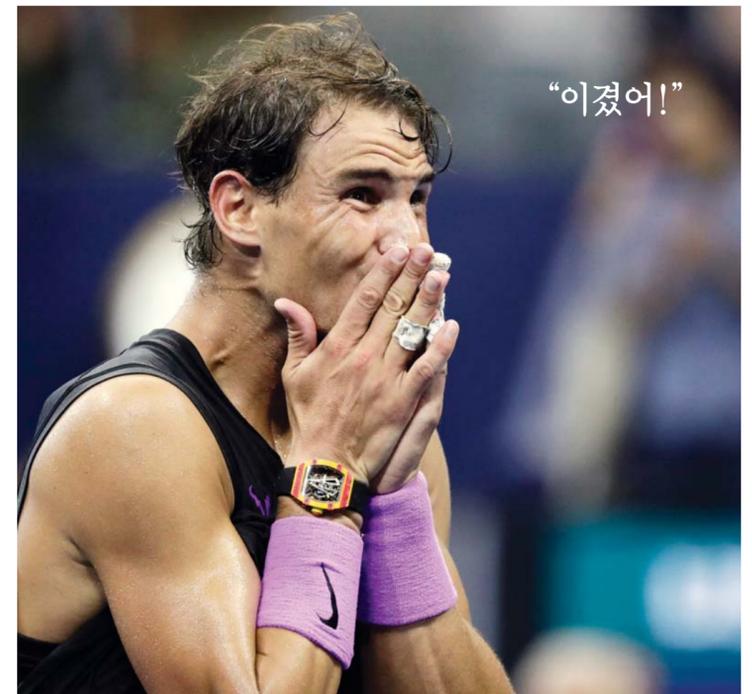
핀란드의 탐페레 라티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J조 6차전 원정경기에서 이탈리아는 후반 14분에 터진 치로 임모빌레(라치오)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다.

핀란드는 최근 유럽에서 가장 핫한 골잡이인 티

무 푸키를 중심으로 반격했다.

티무 푸키는 후반 27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를 성공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34분 핀란드 수비의 핸드볼 파울로 인해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고 키커로 나선 조르지뉴(첼시)가 마무리를 지었다. 중앙 공격수로 출전해 선제골을 넣은 치로 임모빌레는 지난 2017년 9월 5일 이스라엘과의 A매치에서 골을 기록한 이후 733일만에 대표팀 소속으로 골맛을 봤다.

지난 5일 한국 국가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격돌한 조지아는 이날 열린 덴마크와의 유로 2020 조별 예선 D조 경기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이겼어!”

‘우려’를 ‘실력’으로 지운 나달

US 오픈 4번째 우승...나이·클레이코트만 강하다는 편견 깨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은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와 함께 남자 테니스 ‘빅3’을 이루고 있지만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붙어 나왔다.

바로 클레이코트에서만 강한 ‘휴신’이라는 평가와 운동 능력과 파워를 앞세운 경기 스타일로 인해 선수 생활을 오래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나달은 클레이코트에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에서 12번이나 우승, ‘휴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클레이코트에 워낙 강하다 보니 하드코트나 잔디 코트에서 이뤄낸 결과가 빛을 보지 못하는 뜻하지 않은 피해를 봤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끝난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700만달러) 결승에서 나달 메드베데프(5위·러시아)를 4시간 50분 접전 끝에 3-2(7-5 6-3 5-7 4-6 6-4)로 제압한 나달은 이번 우승으로 US오픈에서만 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나달은 자신의 19차례 메이저 우승 가운데 12번을 프랑스오픈에서 달성하기는 했지만 잔디 코트 대회인 윌리엄슨에서 2번 우승했고, 하드 코트

대회인 호주오픈과 US오픈에서는 총 5번 정상에 오르는 성적을 남겼다. 또 많은 랠리에서 포인트를 따내는 경기 스타일에 부상으로 많은 고생을 했던 그에 대해 ‘선수 생활을 오래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나달의 우승은 1968년 이후 역대 최고령 남자 단식 우승자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 됐다. 켄 로즈월(은퇴·호주)이 1970년 35세 나이로 우승한 이후로는 1986년생 나달의 이번 우승이 US오픈 최고령 남자 단식 우승이다.

이날 나달은 마지막 메드베데프의 리턴이 라인 밖으로 향하자 그대로 코트에 드러누워 기쁨을 만끽했다.

나달은 시상식 인터뷰에서 “굉장한 결승전이었다. 오늘 경기는 메드베데프가 왜 세계 랭킹 5위인지 보여줬다. 나달은 앞으로 메이저 우승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며 “오늘 많은 응원에 감사하고, 저의 선수 경력을 통틀어서도 매우 감동적인 날”이라고 승리를 기뻐했다.

한편 메이저 대회 통산 19회 우승을 달성한 나달은 페더러의 20회 우승 기록에도 1승 차이로 다가섰다. /연합뉴스